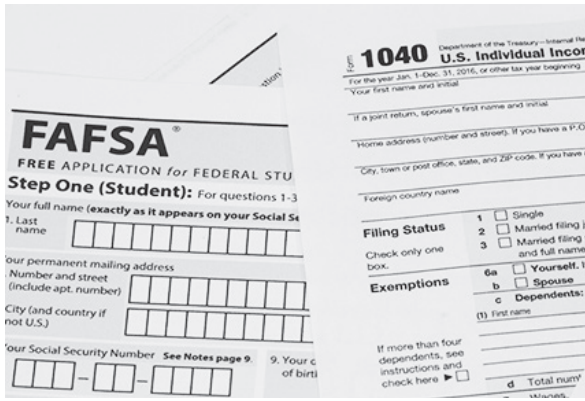


대학 학자금 보조 신청 시 유의할 점

대학에 원서를 내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대학 공부에 소요되는 재정을 도움받기(Financial Aid) 위해 재정 지원 신청서를 내는 일이다. 재정 보조 신청서를 내야하는 마감일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조기 전형의 경우 빠르게는 11월 1일이나 15일부터 2월 중순까지, 정시의 경우에는 빠르게는 2월부터 시작하여 3월 혹은 그이후까지 대학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다. 그러니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의 각 서류 제출 마감 시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재정 보조를 최대한으로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바로 기한에 맞춰 지원서를 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조를 받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한다.

첫째,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은 자신들이 학자금 용자를 받기 위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무료 연방 학자금 신청서(FAFSA)를 아예 제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미국교육협회의 통계에 의하면, 저소득층 가정의 5분의 1은 보조 신청서를 내기만 하면 연방 펠그랜트(연간 약 5,800달러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도 서류 조차 내지 않아서 보조를 못 받는 경우가 있다.

특히 가계 수입이 6자리(10만 달러)를 넘는 가정들의 경우 신청서를 아예 내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가족의 숫자,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의 수, 가장 나이가 많은 학부모의 나이 등도 고려해 학자금 보조를 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설사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다 좋은 조건의 용자를 받을 수도 있다.

둘째, FAFSA신청서를 작성할 때 세금 보고 관련 자료는 직전년도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가을에 대학 진학할 학생들은 부모의 2019년도 세금보고 자료로 신청할 수 있다.

보통 많은 대학들의 경우, 재정 보조는 일찍 내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FAFSA 신청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 FAFSA는 이미 지난 10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셋째, FAFSA 신청 시 지원하는 학교명에는 자신이 입학하고 싶은 학교만이 아닌 지원하는 모든 학교의 이름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 계획은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것이다. 한 번에 열 군데까지 혹은 그 이상도 가능하다.

넷째, 부모가 이혼을 했거나, 재혼을 한 경우 또는 부모가 이혼을 했지만 어머니와 아버지의 집에서 오가며 생활하는 경우, 더 많은 재정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가계 소득이 더 낮은 부모 쪽에서 더 오랜 기간을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섯째, FAFSA를 제출하면, 교육부 측에서 가족의 학자금 예상 지출 금액 (Expected Family Contribution)을 정해 이것에 기반해 모든 보조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 금액은 그 가정의 특수한 경제 상황(최근에 일어난 휴직, 실직이나 일하는 시간의 감소, 가정의 사망)을 반영하지 않기에 그 가정이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지나치게 높게 잡힐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등록할 대학의 재정 보조 사무실에 이 사실을 알리고 가능한 많은 금액을 보조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얼리에 실패했다면 레귤러 지원은 이렇게

대학입시 얼리에서 불합격 또는 디퍼가 된 학생들이라면 마음의 충격이 없을 수 없다. 어떤 대학을 지원해도 모두 불합격될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리기도 한다.

여기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반드시 재정보조/장학금을 신청해야 하는 가정의 경우 더욱 난감함이 더해진다.

정시 마감일은 1월 1일부터 4-5월까지 학교마다 다르나 마감일이 1월 1일인 대학들은 대부분 최상위권 대학들이다. 주립대학들 가운데서도 1월 1일 마감일이 많지만 마감일이 1월 1일 이후인 주립 대학들도 상당수에 달한다. 그러므로 얼리에서 실패했다라도 정시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미래교육연구소’ (소장 이강렬)가 얼리에 실패하고 정시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조언했다.

■ 레귤러에 안정권 대학을 꼭 추가하라

얼리에 불합격했다라도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여전히 명문 대학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명문 대학만 고집하다가 지원한 학교에서 모두 불합격될 수도 있다.

후회는 아무리 일찍 해도 늦는다. 레귤러 지원 대학 중에는 보증을 드는 기본으로 안정권 대학 1-2개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

■ 레귤러에 재정보조/장학금을 신청하라

어떤 학부모들은 재정보조/장학금 신청이 합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레귤러 지원 시 재정보조를 신청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큰 불행을 자초한다. 합격 후에도 등록을 하지 못하거나 집을 팔거나 부채를 져야 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재정 부담이 가능한 수준에서 재정보조 신청을 하거나 등록금이 저렴한 대학을 찾아야 한다. 레귤러의 경우 지원 마감보다 재정보조 원서 제출 마감일이 한 달 내지 보름 정도 늦다.

원서는 서둘러야 하지만 아직 재정보조 신청서는 준비할 시간이 있다. 자신이 재정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학을 찾아 지원해야 등록금으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당,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